

41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제임스 딘

양to the치기 41일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 둘은 윤리학의 쌍두마차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을 서로 묶어 주고 그들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던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났다. 그에 따라 ㉠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으로써 정당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의무, 옳음, 책무 등에 대한 정당화 과제에 골몰해 온 결과, 윤리적 삶에서 행위의 동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 각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 ②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 보편적 윤리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 ③ 교조적인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 설명
-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 ④ 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존 윤리학이 지닌 편향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⑤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 도덕적 가치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 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조선 사회의 윤리 체계는 정당화의 기반을 유교적 이념에 두고 있었군.
- ② 광해군 때는 전통적 권위에 의거한 규범을 전제로 한 백성들의 동기화가 시도되었군.
- ③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④ 충, 효, 예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시대 윤리 체계의 핵심 개념이었겠군.
-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3.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학에서 개인의 실천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기존 윤리학에서 동기화 과제보다 정당화 과제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 ③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에서 의무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 ④ 특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 ⑤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세기 유럽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었다. 비잔틴 미술은 종교화의 본보기를 제시하였다. 당대의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배치했다.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작위적인 시선을 가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구별되는 회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회화의 선구자는 조토 디 본도네였다. 조토는 평면적 작품 위주였던 당시에 입체감을 표현하여,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천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 또한 인물의 표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표정 묘사와 시선 처리에서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지어 신격화되어 왔던 대상까지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려냈다.

그렇다면 조토는 어떻게 당대 다른 그림보다 입체적이고 사

실감 있는 회화를 이루어냈을까? 그 기반에는 사실적인 관찰이 있었다. 일례로 이탈리아의 아레나 성당에 그려진 「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별을 들 수 있다. 그는 헬리 혜성의 모습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듯 그는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한 것을 그림에 반영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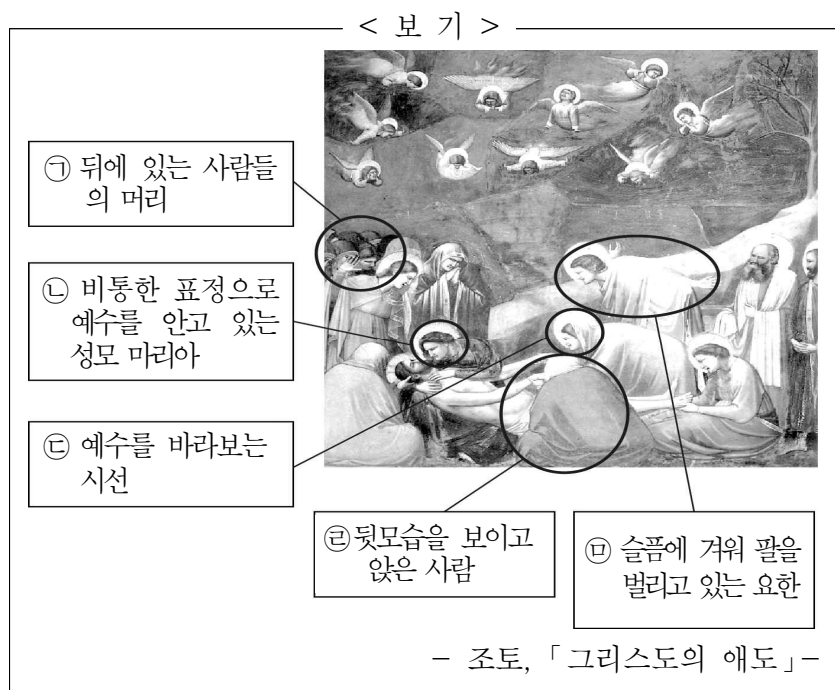
또한 조토는 구도를 면밀하게 고려함으로써 사실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화가들은 평면의 세부적 묘사에 치중하였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도록 하였으며, 앞뒤 인물의 크기를 비슷하게 그렸다. 그러나 조토는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원근법을 사용하였고, 앞과 뒤의 인물이나 사물이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간격이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거리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의 그림은 여전히 중세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미묘하고 강렬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화가였고, 이러한 그의 업적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로마 미술은 회화에서 공간감을 나타냈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원근법을 계승하였다.
- ③ 비잔틴 미술은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 ④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평면적인 회화가 대부분이었다.
- ⑤ 13세기 유럽 회화에 묘사된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중첩법으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 성모 마리아와 같이 신경화되어 온 대상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은 것을 찾을 수 있군.

- ③ ㉢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중세 종교화에서 이어온 인물 표현의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에서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그림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구도를 읽어낼 수 있군.
- ⑤ ㉤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화가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군.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독서할 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을 하면 남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앎과 깨달음’이 더욱 자라나서 말과 행동이 두루 통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앎과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은 짝 막히게 되어, 얻었다 해도 반드시 다시 잃게 마련이다.

성현(聖賢)들은 도리를 닦고 언론과 법규를 바로 세워 천하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고 난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장차 도리를 전하고 말을 풀어 놓아 ‘앎과 깨달음’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을 두루 통하게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치와 뜻은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한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두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지식으로 미루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깨달음을 발휘해 말을 가리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마음이고 학문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나) 독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사물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마땅히 자신이 행할 도리가 분명히 나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천하의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옛 성인과 현자가 마음을 쓴 발자취와 세상만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및 경계해야 할 내용이 모두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해야 한다.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뜻을 다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고하고,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글과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속으로 얻지 못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슨 이로움과 유익함이 있겠는가?

- 이이, 「독서(讀書)」-

양to the치기 41일차

6.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⑤ 글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7.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서를 통해 ‘앓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②
-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③
-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④
-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웃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우린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실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게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너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오?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다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만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만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노잣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만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만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만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오!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만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어 전송하며, 목이 맨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너라!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8.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10. ㉡, ㉢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함께 다니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재, 길쌈,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양기로 수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볼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깎기, 네 돈 받고 장옷 짓기, 닛 돈 받고 도포하기, 엇 돈 받고 천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돌찌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넉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없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땡땡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냡을 대돈번*으로

양to the치기 41일차

언어내어 박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앞은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
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 어두
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
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
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
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
였으니 넌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옵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
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
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
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
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
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答杖) 골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
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
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비부지자: 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천익: 무관의 공복. 철릭.

* 대돈변: 돈 한냥에 대해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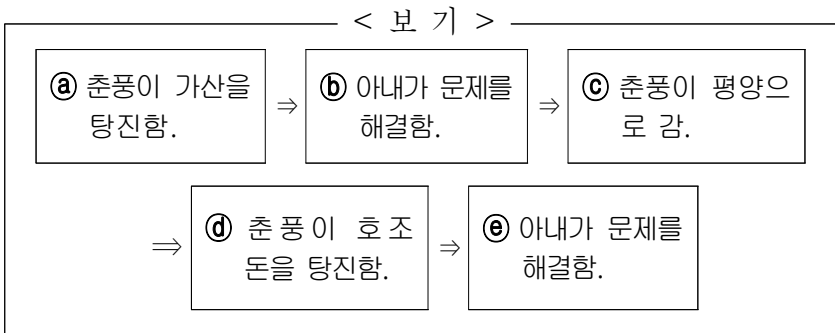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것은?



- ① ㉠와 ㉣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
고 있다.
- ③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
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를 만류한 것은 ㉣를 염
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의 과
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
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
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
는 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
인 가장이 되었다.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
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
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④⑤④②③
⑤⑤②③⑤
③①⑤

해석

[1~3] (인문) 황경식, ‘도덕 행위의 동기화와 수양론의 문제’

이 글은 윤리학의 정당화 과제와 동기화 과제에 주목하고 시대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여 왔던 경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윤리학이 이 둘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글쓴이는 1문단에서 윤리학의 정당화 과제와 동기화 과제를 소개하면서, 시대에 따라 이 과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대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나누어 윤리학이 두 과제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쳤던 양상을 설명하였다. 5문단에서 글쓴이는 두 과제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보기>는 임진왜란 이후 윤리 의식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조선의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고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광해군의 의도에서 윤리학의 과제 중 동기화의 과제가 강조되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적으로 이해한다.

㉠의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은 근대 이후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들 간의 유대가 약화된 상황과 연결된다. 이는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따른 윤리 체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이후의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5] (예술) 팀 말로 외 지음, ‘세기를 빛낸 위대한 화가들’

이 글은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라는 13세기 말 이탈리아 화가의 회화에 대한 글이다. 이 화가는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회화를 시도하여 근대적인 회화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다. 조토의 회화가 지닌 사실적 경향을 사실에 기반한 관찰과 원근법, 중첩법, 그리고 사실적이고 생생한 인물의 묘사에서 찾아보고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1문단에서 비잔틴 회화는 작위적이고 관습화된 회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문단 끝 문장에서 조토의 생생하고 인간적인 회화가 르네상스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비잔틴 회화와 르네상스의 회화는 상반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잔틴 회화에서 원근법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조토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조토 회화의 특징이다. 이는 중세 종교화와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7] (독서) (가) 윤휴, ‘독서기서(讀書記序)’ / (나) 이이, ‘독서(讀書)’

(가) 윤휴, ‘독서기서(讀書記序)’

글쓴이는 독서할 때 반복해서 생각해야 하며 그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 이이, ‘독서(讀書)’

이 글에서는 독서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옛 선인의 독서 목적을 파악해 독서 문화를 이해한다.

(가)의 글쓴이는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기록하면 이치에 두루 통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가)와 (나)의 글쓴이 모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을 독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옛 선인의 독서 전략과 태도를 이해한다.

(가)의 글쓴이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에 나타나 있어도,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 있지 않다.

[8~10] (회곡)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꽃 본 듯이’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옷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둘째, 막내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고, 십 년 후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정승이 된 만형은 어머니의 겉모습과 똑같은 여인을, 승려가 된 둘째는 어머니의 모성적 이상(理想)으로 불상(佛像)을, 광대가 된 막내는 어머니의 심성을 자신의 몸속에서 발견하여 찾아온다. 이를 통해 모성의 희생적 모습과 더불어 인생의 대표적 가치로 표상되는 정치, 종교, 예술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 작품이다.

8. [출제의도] 극의 전개 내용을 이해한다.

본문 내용은 행방불명이 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세 자식들’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다.

[오답풀이] ① 노파가 모아준 노잣돈을 ‘세 자식들’이 서로 덜어주는 장면에서 이들의 우애가 돈독함이 드러난다. ② 만형은 처음에는 가족 격정에, 둘째는 어머니의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길 떠나길 주저하였다. ③ 막내는 어머니를 찾는 기간으로 ‘십 년 기약’을 제안했다.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각 서울, 바다, 산으로 어머니를 찾아나선다. ⑤ 만형은 어머니가 도망한 것으로, 둘째는 죽은 것으로, 셋째는 생사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9. [출제의도] 무대의 특성을 통해 극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연극은 설화적 이야기에 현재 상황이 개입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배우들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넘나들며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만누나는 자신도 오빠들과 헤어졌던 경험을, 만형은 ‘어머니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연극 속 과거에서 현실에서의 자기의 이야기로 화제를 연결 짓고 있다. ② 배우들이 종이옷을 입으면 설화적인 인물을, 종이옷을 벗으면 배우 자신으로 돌아와서 현재 인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때 배우는 허구 세계를 빠져나와 배우로서 관객에게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일 뿐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10. [출제의도] 대사를 통해 회곡의 주제를 파악한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과거의 욕망이나 가치)’를 잃고 새롭게 찾아 나서는 욕망이나 가치를 의미하므로, 이를 욕망의 무상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이상일 수도, 예술일 수도 있’다에서 어머니가 인간 욕망의 비유적 표현임이 드러난다. ② ㉡에서 ‘세 갈래 길’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므로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서로 다름을 보여 준다. ③ ㉢에서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으며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라 하고 있다. 각자의 욕망을 위해, 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어머니를 찾아나서는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한다. ④ 세 자식들이 택한 길이 서로 다른 것은 각자의 인생의 길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13] (고전소설) 작자미상, ‘이춘풍전’

방탕하고 무능하며 가부장적인 권위로 가득 찬 춘풍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현명한 아내와의 갈등을 통해 조선 후기 가부장적 가치관의 변모를 해석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11. [출제의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평양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밀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춘풍이 ㉡에서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맞지만, ㉢에서 춘풍의 아내가 다시 재산을 모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로 인해 가세가 기울 것으로 볼 수 없다.

12.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해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을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들이 생기면서, 여성이 집안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춘풍은 수기에서 집안의 중대사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집안의 경제권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춘풍의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춘풍의 아내가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모아 가산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판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 있다. 침재, 길쌈 등 춘풍의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4~5년 동안 이러한 일을 통해 가세가 풍족해졌다는 말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